"포기하지 마세요"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에서 대표자가 비통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평택=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니야, 살아있어, 제발 빨리…"

'천안함 침몰' 엿새째 전남출신 실종자 가족들 애끓는 호소

"차디찬 바닷속에서 떨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발 아들을 구해주세요."

'천안함' 침몰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실종자 가족들은 기상상태 악화로 구조작업이 중단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전날까지 배를 타고 사고 현장을 맴돌던 광주·전남 출신 실종자의 가족들도 구조가 진척되지 않자 먼 발치에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1.8㎞ 떨어진 천안함 침몰사고 현장. 시정거리가 100m에 불과할 정도로 희뿌연 안개가 자욱했다. 전날까지 분주하게 사고 현장을 오가던 2t급 '립(rib)' 보트는 해안가에 정박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해군 소속 UDT·SSU 구조대원들은 애초 이날 오전 9시부터 구조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파고가 1.5m~2.5m를 넘나들고 유속도 6.6노트로 빨라지자 작업을 멈춰야 했다.

구조작업이 중단되자 곡성 출신의 정종율(33) 중사를 비롯, 문규석(37·구례) 중사, 강 준(29·고흥) 중사, 이상민(22·순천) 병장 등 전남 출신 실종자 4명의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나흘간 침몰현장을 맴돌며 구조상황을 지켜보던 정종률 중사의 가족들은 이날 배를 타지 못한 채 바다 쪽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또 일부 가족들은 이날 해군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정종율 중사의 아버지 정해균(63)씨는 "어제까지 배를 타고 사고 지점을 둘러봤는데, 이렇다할 수색 성과가 없었다"며 "사고 이후 '뜬구름 잡기'식으로 수색하고 있는 군 당국의 무성의함을 알리기 위해 평택의 실종자 대기실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 중사의 어머니 이 덕(59)씨도 "시커먼 바닷물 속에 있는 아들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며 "하루빨리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실종자 대기실에서 오열하다 쓰러져 사흘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마련된 33㎡ 크기의 실종자 대기실. 가족들은 출입문을 굳게 닫은 채 구조작업 재개 소식 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이들은 사고 이후 6일간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으로 몸부림을 친 탓인지 병원을 자주 오갔다.

강 준 중사의 매형(33)은 "오늘은 구조작업 마저 중단돼 사고 현장 조차 둘러볼 수 없어 안타깝다"며 "사고 이후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처남의 약혼녀를 위해서라도 빨리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에 집결해 사고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군 당국에 신속한 구조작업을 촉구했다.

실종자 가족 대표 46명으로 구성된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났지만 함미 부분이 소형 어선에 의해 발견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군 당국의 더딘 수색 작업을 성토했다.

가족협의회는 또 "우리는 차가운 바다 속에 갇힌 실종자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 구조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가족협의회는 전날 구조 작업 중 숨진 해군 UDT 소속 고(故) 한주호 준위와 관련해 "해군 측은 심해 조명장치나 감압장치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또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평택=이종행기자 golee@ /백령도=김형호기자 khh@

■ 음주측정 거부 40대 풀어준 사연

막노동으로 고3 등 두 아들 부양 구속 시키면 가족들 생계가 막막

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구속된 40대 가장에 대해 홀로 '고3 수험생' 등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를 감안해 이례적으로 석방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지난달 31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된 주모(47)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씨가 7년전 부인과 이혼한 뒤 혼자 막노동으로 대학 1학년과 고3 등 두 아들을 부양해 오고 있어 주씨가 구속될 경우 가정이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검찰은 또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아들이 아버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감안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최근 순천지청이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한 '수사자문위원회'의 첫 심의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주씨가 구속될 경우 자녀들까지 더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 구속취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발족한 '자문위원회'는 초대 위원장에 임상규 순천대 교수(전 농림부장관)가 위촉됐으며, 법조계, 종교계, 여성단체 인사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5인 이상으로 이뤄진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며, 구속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 등 인신구속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보조금 빼내 빚 갚고 부동산 구입

영어조합법인 대표 등 적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영어조합법인 대표들이 구속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국고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H영어조합법인 대표 이모(63·해남군)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개 영어조합법인 대표와 이들이 보조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도와준 건설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해남군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씨는 자부담 예치금 2억 8천만원을 모두 인출한 데 이어 일부 보조금도 빼내 채무변제,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해양경찰은 이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박모(48)씨와 건축업체 대표 김모(34)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정부로부터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후,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3천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별거 아내 폭행치사

광주광산경찰은 지난달 31일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곽모(48·회사원)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곽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자신의 셋방에서 아내 A(4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함량미달 기름 납품 10억 편취

목포해경, 업체 대표 영장 … 기름 운송 5명도 입건

목포해양경찰은 지난달 31일 국가어업지도선에 함량 미달인 값싼 기름을 납품해 10억원을 편취한 여수 K에너지 대표 최모(47)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기름 운송에 관여한 선박 운송업체 대표 김모(3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에 연료유 납품 계약을 하고 함량이 떨어진 기름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최씨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팩스로 보내는 수법으로 서해어업지도사무소를 속여 1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어업지도선 엔진에 필요한 연료유를 ℓ당 1천23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이와 성분이 비슷한 기름을 납품해 두 배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

운송업체 대표 김씨는 최씨와 짜고 여수에서 목포까지 기름을 운송했으며, 김씨로부터 기름을 받은 목포 D석유는 함량 미달 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업지도선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서구청장 전 수행비서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지난달 31일 현직 구청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의 전 수행비서 이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비서직을 사직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들과 함께 서구 주민 1천373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구청장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4~7급 공무원 32명이 1인당 8명에서 많게는 152명까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이씨에게 건네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교수가 학생 공모전 상금 착복"

쌍나팔

○…전남대 모 교수가 학생들이 받은 공모전 상금과 장학금 중 일부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학이 진상조사에 착수.

○…지난달 31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예술대학 모 학과 동문 일동 명의로 최근 '모 교수의 만행을 고발한다'는 유인물이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 등에 무더기로 살포.

○…A4용지 크기의 이 유인물에는 교수가 "학생들의 외부 장학금과 지원금, 공모전 상금 착복, 공금횡령, 수업중 흡연, 무단 수업 결손 등 비도적적이고 비윤리적인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해당 교수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검토중이다"고 밝혔으며, 대학측은 이날 교수의 학과장 보직 해임 조치와 함께 조사를 시작.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